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27-28)



〈의심하는 토마스〉, 카라바조(Caravaggio, 1571-1610)

[제1독서] 사도 2,42-47

[화답송] 시편 118(117),2-4.13-15ㄱㄴ.22-24
(◎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1베드 1,3-9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음] 요한 20,19-31

[성가 안내]

- 입당성가: [138] 만왕의 왕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226] 하느님 자비하시니
- 파견성가: [141] 죽음을 이긴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도 참된 기쁨이 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토요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알렐루야를 외치며 서로에게 “부활을 축하한다.”고, “Happy Easter!”라고 인사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기쁜 부활을 맞이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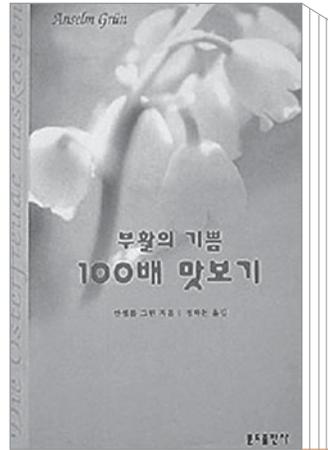
우리가 사순시기를 통해 부활을 잘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했다면 그 기쁨은 우리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앙의 기쁨이 아닌, 휴가를 갈 수 있고, 계란을 나눌 수 있으며, 많은 이벤트들로 기뻐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느님 안에서의 부활의 기쁨이 아닌, 단지 매년 이맘 때쯤이면 이벤트처럼 다가오는 세상의 유희로 인한 기쁨일 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때 더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인 사순시기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가난한 사람들과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가신 십자가의 무게를 조금씩 나눠 질 수 있을 때 부활의 기쁨이 더 깊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었던 성삼일, 곧 주님 만찬 성목요일과 주님 수난 성 금요일, 그리고 부활 성야 전례에 마음을 모아 참여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더 기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성삼일 전례에 잘 참여하고 있을까?”, “복잡하고 긴 전례에 지루해 하지는 않을까?” 사실 성삼일 전례는 매우 복잡합니다. 신부님 저도 전례들을 준비하기 위해 몇 주 전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복사 연습을 시킬 때는 머리를 싸매고 전례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또한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성 금요일 수난복음을 읽는 데만 20분이 넘게 걸리고 부활 성야 때는 7개 독서 가운데 3개 독서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10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길고 복잡한 전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의무적으로만 참여했다면 계속 시계만 쳐다보며 ‘언제 끝나나?’라는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성주간 때는 각각의 전례 안에서 하는 행위들의 의미를 조금 더 미리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며 미사가 끝나면 왜 남은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는지, 또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제대는 왜 벗기고, 밤을 새며 성체 조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금요일 예식은 왜 미사라고 안하고 ‘주님 수난 예식’이라 부르며 긴 수난 복음을 여럿이 나눠 읽는 이유는 무엇인지... 부활 성야 때, 부활 찬송(Exultet)은 무엇이고, 왜 이리 많은 독서를 읽고, 목요일 금요일 동안 안치던 오르간을 대영광송을 시작으로 다시 치게 되는지 등 전례 행위의 의미를 알고 성삼일 전례에 참여한다면 덜 지루하게, 더 기쁘게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늦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시간들은 흘렀고 지난 주 부활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 100배 맛보기

안셀름 그륀 글
원제
(Die) osterfreude auskosten

분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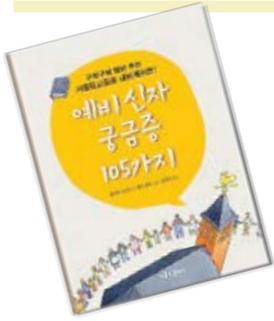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사순시기를 기약하며 내년의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하겠다고 다짐하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 ‘부활의 기쁨 100배 맛보기’에서는 ‘안셀름 그륀(Anselm Gruen) 신부님께서 ‘어떻게 하면 부활시기를 더 기쁘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부활 제 1주간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50일간 각각의 성경 말씀과 묵상거리들을 제공함으로써 매일의 삶 안에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안내합니다.

이 가운데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자로의 소생 이야기에서 무덤을 막은 돌을 설명하며 “어떤 ‘돌’이 그대의 삶을 방해합니까? 그것을 말해 버리고, 기도 중에 하느님께 보여드리십시오. 무엇이 그대를 짓누르고 무엇이 그대 삶을 방해하는지 그 돌 위에 적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냇물이나 호수에 던져 버리십시오. 그대가 원하는 만큼 많은 돌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던져 버리면서 부활을 경축하십시오. 그리고 돌 하나를 던질 때마다 그대의 장애물이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돌들이 더 이상 삶을 방해하지 않을 때 생기는 내면의 넉넉함을 느끼며 이제는 편안히 숨 내쉬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 21장의 고기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무슨 일을 하던 누구를 만나던 ‘저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산보할 때도, 일할 때도, 동료들과 걸끄러울 때도 늘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의 암담한 잿빛 삶이 변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위해 다른 세상에서 그대 삶으로 들어오시는, 그대 삶의 호숫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대는 삶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을 도처에서 감지할 것입니다. 하여, 그대의 분열과 절망, 허무와 좌절이 치유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안셀름 그륀 신부님께서 이 외에도 50개의 묵상거리들을 제공해주며, 삶 안에서 부활의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사항들을 소개합니다. 신부님의 안내에 따라 부활시기를 보낸다면 부활 팔부 축제를 지나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부활의 기쁨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조금씩 변화해가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는 말처럼 나눔을 통해 우리의 기쁨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윌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 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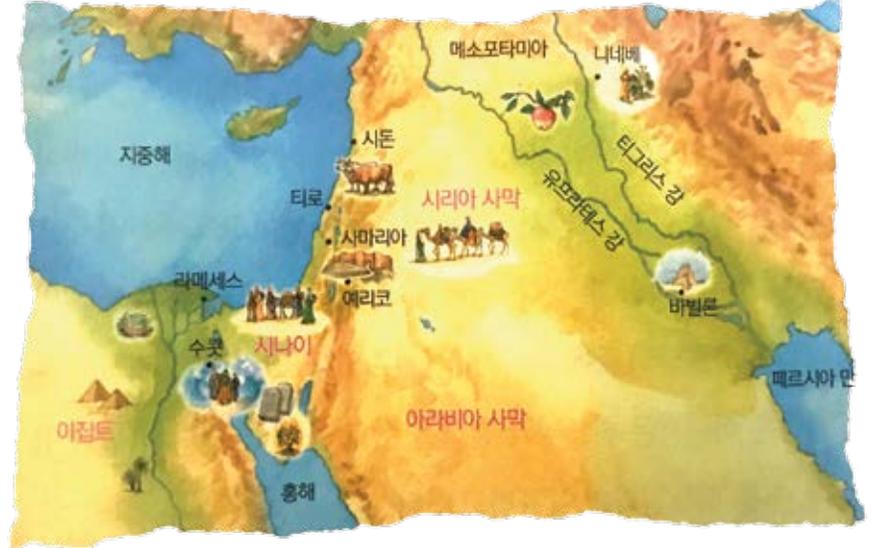
Q 구약 성경의 배경은 왜 대부분 광야일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곳을 성경에서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 이라 부른다. 이 땅은 요르단 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뉜다. 서쪽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물이 풍부하고 날씨가 좋아 비옥한 편이다. 그러나 동쪽은 서쪽과 달리 너무 메말라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다. 이 여정은 무려 40년이나 걸렸는데, 광야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신명 1-3장).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다(탈출 24장). 이 계약과 더불어 중요한 사건들이 광야에서 많이 벌어졌다.

엘리아 예언자는 바알(거짓 신)의 예언자들을 죽인 일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이제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광야로 피신했다(1열왕 19장). 그곳에서 하느님이 엘리아에게 나타나시어 그가 할 일을 정해 주셨다. 요한 세례자도 광야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 예수님은 광야의 외딴 곳에서 기도하셨고, 그곳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셨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면서 희망의 장소다. 즉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면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외로운 곳이기도 하지만 축복받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속세의 삶을 벗어나려 할 때 광야로 들어가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물이나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무척 힘들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느님께 모두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 수 있다.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어디서든 하느님과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묶여 있다. 이를 ‘하느님과 의지’ 라고 한다.

베드로회 정기 모임

지난 16일(일) 부활 대축일 미사 후 나눔터에서 베드로회 정기 모임이 있었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대건 안드레아) 보좌신부님, 정 아가다 수녀님과 이 스텔라 수녀님이 참석한 가운데 베드로회 50여명의 회원들은 바비큐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017년 제9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성령은사 쇄신운동 50주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너희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여라.”

(묵시록 21,3)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팔로티 수도회)

일시 : 5월 28일(주일) 1:30 pm ~ 9:00 pm
29일(월) 9:00 am ~ 5:00 pm
(Memorial weekend)

장소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회비 : \$30.00 (5월 14일까지) / \$40.00 (15일 이후)

문의 : 미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443-717-0886)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장

리 엘리사벳 (오후 2시 목주 기도 인도)

순례 성모님이 오시는 날, 오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성당에 머물렀다. 이 역사적인 시간 동안 깨어서 함께 머물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함께 밤새 깨어 있었다. 늦은 밤과 새벽, 밤을 새워 기도하는 교우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 열정은 내게 큰 감동이었다. 무엇보다, 이런 좋은 시간에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하고, 같은 신앙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다. 사실, 우리 성당이 한국인 성당이라 교구의 다른 신자들이 올까 싶었다. 하지만, 방명록에 기록된 이름만 757명일 정도로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 한국어와 영어로 목주기도를 바쳤다.

방문객들 중에는 생전 처음 낯선 한국어로 십자가의 길과 미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가톨릭 신앙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는 못 알아들어도 가톨릭의 보편적인 전례를 알기 때문에 좋았다고 전하기도 했고,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며 미사 시간을 묻기도 했다. 여러 민족의 교우들이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보속으로 통공하며 기도하도록 모아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지역에 우리 성당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 영광을 드렸다!

임 아나스타시아 (오후 11시 기도 인도)

많은 외국 신자들이 와서 성당이 너무 예쁘다고 해서 무척 기뻐다. 순례 자금 마련을 위한 도네이션 박스가 넘쳐 나서 몇 번이나 새로 비웠고, 어떤 교우들은 목주기도 시간에 맞춰 여러 번 왔다갔다 하셨다. 그동안 파티마 세계 사도직 회원으로 켈 모임을 해왔지만, 이런 특별한 봉사는 처음이었다. 그동안 파티마 세계 사도직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한 채 켈 모임만 계속 참여해 왔는데, 순례 성모님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분이심을 느꼈다. 성모님을 만나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종, 국적을 넘어서 우리 본당을 찾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느꼈다.

비록 다른 말을 쓰고 평생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모님 앞에서는 다 한 가족, 한 마음으로 모여 든다는 게 가슴 벅차게 다가왔다. 막내가 아직 여러 밤을 새서 봉사를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봉사자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내 상황을 핑계삼으며 하느님 일을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다. 앞으로는 남에게 좀 더 관대하고, 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하느님과 성모님이 보시기에 어여쁜 신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 전국 순례 파티마 성모님의 본당 방문을 되돌아 보며...

"Your church is so beautiful!" 참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이 동네에 살면서도 여기 한국 성당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This is my first time praying rosary in English and Korean. It was interesting!"

처음으로 영어와 한국말로 목주기도를 해 봤는데,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지난 3월 24일, 파티마의 국제 순례 성모님이 우리 성당에 머무실 때, 본당을 방문했던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의 교우들이 들려 준 말입니다. 파티마 발현 100주년을 맞아 본당을 방문한 순례 성모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와 기도, 희생과 보속에 대한 마음과 따뜻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봉사자로 참여했던 파티마 세계 사도직 회원들의 체험을 통해 순례 성모님 방문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김 그라시아 (파티마 세계 사도직 회장)

3월 25일 새벽 3시, 본당 안, 참으로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체와 그 옆에 모셔진 성모님. 마치 100년 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세 명의 작은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셨던 내 상상 속의 성모님의 눈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파티마의 성모상은 온화한 미소로 나를 내려다 보고 있고, 나는 어느 때보다 순하고 선한 마음이 된다. 내 아이가 신생아 때 나를 바라보던 바로 그 눈빛으로, 나도 어머니를 바라본다. 가볍게 미소를 띄며 서로 바라보는 동안, 다시 함께 목주기도를 바칠 시간이다.

놀랍게도, 반 이상이 다민족 교우들이다. 새벽 3시 쯤 큰 가방을 메고 성금성금 걸어 들어왔던 키가 큰 한 흑인 교우는 아예 성모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다른 동양인 교우들도 개인 묵상을 중단하고 목주를 손에 든다. 영어와 한국말로 번갈아가며 바치는 목주기도가 본당 안을 울린다. 이 이른 새벽에.

밥순이가 배도 안고프고, 잠팅이가 새벽에 깨서 기도 하고 있다. 기적 같다. 아침부터 모여 온종일 손님 치르고 이제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봉사자 형제자매들이 다들 평화롭게 웃고 있다. 성모님께서 머무시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것을 맞볼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 주신 걸까?

참으로 특별한 은총의 순간이다. 평생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 가야 할 인생에서 두고 두고 추억할 수 있는 깜짝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 파티마 순례 성모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내게, 오랫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꺼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보석 하나를 가슴에 심어 주셨다.

신 로사 (자비의 모후 켈 팀장, 바오로 자매 모임)

저녁 8시 반쯤, 바오로 자매들 열 다섯 명과 함께 본당에 모셔진 순례 성모님 앞에 앉았다. 이번 순례 성모님 방문은 내게는 하느님의 나라를 어떻게 어렵듯이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성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어머니의 사랑 속에 머물 수 있었으며 거기에는 분명 하느님의 평화가 있었다. 바라볼수록 더 오랫동안, 계속 성모님과 함께 하고픈 이끌림이 있었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 일치가 함께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자매임을 느낄 수 있었고, 가톨릭은 정말 하나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를 드렸다.

김 데레사 (입당식/송별식 사회)

처음에 파티마 성모님께서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믿기 어려웠다. 꿈꾸는 것 같았고 실감이 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서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고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고, 마음이 순한 양처럼 되는 것을 느꼈다. 이미 성령님과 성모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는 것 같았다. 준비 과정부터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시간이나 다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된 것도 주님의 안배라 느껴져, 이미 많은 은총을 받으며 시작했던 것 같다.

준비하는 시간 내내 나의 의지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걸 잊지 않으려 노력했고, 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모두 하나가 되어, 서로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함께 호흡하고 서로 맞추며 진행해 나가는 걸 보며, 가슴 깊이 우리나라 감사를 드렸다.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그걸 들고 왔고, 피곤할텐데도 평온한 표정으로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일치된 모습에서, 예수 성심과 티없으신 동정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 이웃과 함께 하는 기쁨이 무척 컸다.

방문객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주고 받으며 함께 기도드린 게 첫 경험이었던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제가 한국어로 목주기도 하기는 처음입니다.'라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는 교우를 보면서, 여러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기도할 때 진정으로 주님의 한 자녀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남 미카엘 (새벽 3시 기도 인도)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모영보', The Annunciation: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예고를 전할 때, 성모님의 YES 라는 응답, 피앗을 기다리며 마음 졸였을 그 천사의 마음이, 이번 성모님의 방문과 허락을 여쭙보셨던 교구로 부터의 은총의 손길이, 마치 내겐 환희의 신비 1단을 묵상하는 것 같았다.

성모님의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파티마 회원은 교구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며 본당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 사실, 이렇게 많은 교우들과 다민족 교우들이 참여하리라곤 예상을 못했다. 성모님 입당식부터, 어린아이들의 장미꽃 봉헌과 환영은 내 눈물을 주르륵 흘러내리게 했다. '아이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모님의 아이들의 기도 요청의 목소리가 상기되었기 때문이다.

성모님의 파티마 메시지가 많은 교우들에게 선포되고, 함께 목주기도를 드렸던 순간은 내게 성모님께서 '보아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은총과 평화를 주러 왔단다'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너희는 내게 YES 라고 대답해주겠니?' 라는 성모님의 요청은 새벽 묵상 중에 성모님의 눈을 바라보며 나의 의지와 대답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 내 마음이 변하는 것, 하느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의 열정이 불러 일으켜지는 것! 내 의지보다는 하느님의 의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말이다.

많은 외국분들이 한국어로 미사를 드려도 다 알아들었다고 하시며, 그래서 'Catholic, 민족과 언어를 막론한 보편된 하나의 신앙' 이 아니냐며 기뻐하시며 '참 아름답다! 고 한 말이 생각한다. 파티마 발현 100주년 기념 본당 방문은 우리 본당과 신자들, 그리고 타본당 교우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었을거라 느껴진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고, 찾고, 영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무지한 우리들에게 성모님께서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는 곳으로, 복음의 길로 걸어가고 부탁하신다. 그분 아드님이신 '예수님' 께 가까이 가라고 말이다. 우리 삶의 중심이시며, 전부가 되셔야 할 하느님 아버지께 이 시간들이 '그분 보시기에 참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Easter Egg Hunt

St. Paul Chung's CCD students had a blast during the Easter Egg Hunt on our church's front yard on April 16th.

The Easter egg hunt gate was opened by Fr. Seong and completed in three separate rounds: K-2nd grade, 3rd-5th grade and 6th grade and up.

Special Thanks to Fr. Seong, PTO and parent volunteers.



A Message from Pope Francis on Easter Sunday

“Keep the faith in our trying times”

VATICAN CITY — Pope Francis broke with tradition to deliver an Easter homily Sunday that called on people everywhere to cling to faith despite suffering from the violence and intolerance sweeping the world.

The pope usually conducts an Urbi et Orbi blessing — Latin for “To the City and the World” — just after the Easter Mass. But Francis addressed a concern likely on the minds of many Catholics on this religious holiday as they witness what seems like daily images of war, terrorism and famine in every corner of the globe: Why is tragedy so common if Jesus rose from the dead to forgive the sins of the world, the central belief behind Easter?

“The Church never ceases to say, faced with our defeaters, our closed and fearful herds, ‘Stop, the Lord is risen,’” Francis said in the homily, referring to accidents, human trafficking, disease, revenge and hatred. “But if the Lord is risen, how come these things happen?”

Easter, he said, is “a sign in the midst of so many calamities, a sense of looking beyond, of saying don’t look to a wall, there is a horizon, there is a



life, there is joy.”

Francis also used his Easter message to lament a bombing in Syria on Saturday that tore through a bus depot in Aleppo as evacuees were awaiting transfer, killing at least 100. “Yesterday saw the latest vile attack on fleeing refugees,” the pope said. Francis prayed that God would help those working to aid civilians in Syria who were caught in “a war that continues to sow horror and death.”

He also prayed for peace in the Holy Land, Iraq and Yemen.

St. Peter’s Square was packed despite a brief rainstorm and what Vatican officials said was the

heaviest security checks ever for a public event at Vatican City, a nod to increased threats against the 80-year-old pontiff.

Flags from dozens of nations flew, and some in the crowd held signs calling on Francis to pray for victims of violence in Syria and in Africa.

When the Mass ended, Francis toured the plaza in a new, electric-powered “pope mobile” that made it easy for the pontiff to give impromptu blessings. At one point, he stopped to hold a small child. At another, he performed the sign of the cross before a group holding flags from his native country of Argentina.

April 16, *USA Today*

ANNOUNCEMENT

1. Jr. High Bash

- When : April 29(Sat) 3:30pm-9pm
- Where : St. John Paul the Great HS in Dumfries
- Registration Deadline : April 23
- Cost : \$10/participant

2. Rice Bowl Collection

- When : April 23 and April 30
- Where : Hasang Lobby

1 성모의 밤

- 일시 : 5월 12일(금) 오후 7:30
- 꽃 봉헌과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파티마 일일 성지 순례

- 파티마 세계 사도직 주최로 일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자연 속에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과 함께 하는 은총의 자리에 교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년 5월 13일(토) 오전 5시 출발/ 오후 10시 도착
- 장소 : 뉴저지 파티마 성지 (The Shrine of the Immaculate Heart of Mary)
- 참가비 : 1인당 70불(식사 포함)
- 버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며, 참가비는 현금으로 신청서와 함께 내주세요.
- 문의 : 김 그라시아 (571) 243-5054

3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 5월 7일까지(8시 / 10시 미사 후)
- 준비 서류 :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 혼례증서
- 견진식 : 6월 25일(일) 주교좌성당 오후 2:30
- 문의 : 김우기 교육부장(703) 395-1305

4 불우 이웃 돕기 야드세일

- 불우 이웃 돕기 일환으로 야드세일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13일(토), 5월 14일(일)
- 장소 : 성당 주차장
- 물품 기증 : 5월 7일까지(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강동훈 요한(703)585-2700

5 하상회 모임

- 일시 : 4월 23일(일) 오전 11:30(B-3,4)

6 안나회 모임

- 일시 : 4월 23일(일) 오전 11:30(A-1,2,3,4)

7 KofC 정기모임

- 일시 : 4월 23일(일) 오전 11:30(B-1)

8 요한회 모임(50대 교우)

- 일시 : 4월 23일(일) 오전 11:30(B-2)

9 복사단 모임

- 일시 : 4월 23일(일) 12:40(B-1,2)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4월 23일(일)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하상회(오전 11:30, B-3,4), 안나회(오전 11:30, A-1,2,3,4), KofC(오전 11:30, B-1), 요한회(오전 11:30, B-2),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주일학교 소방훈련(오전 11:10, 하상관)
24일(월)	부활 제2주간	아침 미사(오전 6:00, 성당)
25일(화)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하상성인학교(오전 9:30-하상관, 친교실),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26일(수)	부활 제2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27일(목)	부활 제2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28일(금)	부활 제2주간	하상성인학교(오전 9:00, 하상관, 친교실), 바오로 자매 모임(오후 8시)
29일(토)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하상한국학교(오전 9:30, 하상관)
30일(일)	부활 제3주일	주일학교(오전 10:00, 하상관), 푸르실로 주말교육자 환영식(오후 5시, A-1,2,3)

10 주일학교 소방훈련(Fire Drill)

- 일시 : 4월 23일(일) 오전 11:10(하상관)

11 부활파 봉사단 첫모임

- 일시 : 4월 23일(일) 오전 11:30(하상관 #108)
- 문의 : 유제운 요셉(703)628-9314

12 페루 부활파 봉사단(메디컬 의사 긴급 모집)

- 2017년 페루 부활파 봉사단에서 의료 봉사하실 메디컬 의사를 찾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3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여행

- 부부간의 성숙한 대화를 통해 행복한 부부생활을 도와주는 특별한 주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27(토) - 5월 29(월)
- 장소 : Double Tree Hilton Hotel, NJ
- 문의 : ME 대표 김 레지나 (703-477-2446)

14 2017년 아시아 태평양계 성모 성지순례

- 일시 : 5월 6일(토) 오전 11시 성당에서 출발
- 장소 : 워싱턴 D.C National Shrine
- 등록 : 친교실(선착순), 차편/점심 제공
- 문의 : 허진 (703)376-1372

15 제1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봉사부 / KofC 주관)

- 4월 23일 예정이었던 골프대회가 5월 7일 오후 2시로 연기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5월 7일(일) 오후 2시
- 장소 : South Riding Golf Club
- 문의 : 김버나드 (703)342-2194

16 제9회 미동중부 성령대회

- 생명의 말씀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5월 28일(일) 오후 1:30 - 오후 9시
5월 29일(월) 오전 9:30 - 오후 5시
- 장소 : 워싱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신청비 : \$30 (5월 14일까지) \$40 (15일 이후) / 2식 식사 포함
- 문의 : 안진이 제올리아 (703)216-5792

17 성경통독 참석자 모집

- 본당 설정 25주년(2021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성경(신약, 구약)을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접수 : 매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 문의 : 지경수 요한(571)331-6047

18 WorkCamp 2차 음식 판매

- 일시 : 4월 30일(일) 오전 8시-오후 1시
- 메뉴 : 제육/ 불고기 덮밥 \$10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부활 제2주일: 창세 40-43, 마태 13

KACM TV 하이라이트



- 4월 27일 (목) 오후 5:00-6:00
- 4월 28일 (금) 저녁 11:00-12:00
- 4월 30일 (일) 자정 12:00-1:00

- 복음영상
- 성 정보으로 성당 부활절 미모저모
- 특집 / 불어라 평화의 바람 : 2016 국제청년 평화 순례. 155 마일 DMZ를 걸으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평화를 기원하는 여러 나라 청년들의 체험기

하느님의 자비 주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하였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하였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내고 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4월 16일 (예수 부활 대축일)

주일헌금 \$ 22,762.55
 교무금 \$ 9,220.00
 교무금(신용카드) \$ 5,800.00
 특별헌금 \$ 600.00
 2차 헌금 \$ 2,462.00
 성목요일 \$ 2,429.25
합계..... \$ 43,273.8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종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종(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우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타), 김경호(사도요한), 오인균(바오로), 김영식(토마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철(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월(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방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웨딩사진 전문 www.soowonlee.com 이 클라우디아 703-785-0900	Folds & Crafts 종이접기, 한지공예(성인, 어린이) 강사반, 취미반, 작품판매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